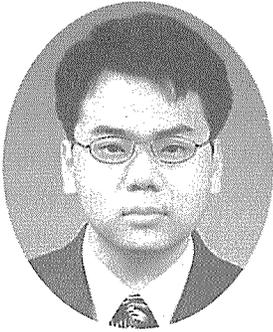


#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5)

- 야후!를 알면 인터넷이 보인다 -



글 / 류지창  
(주)데이콤 컨리안사업단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월드와이드웹 서비스이다.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월드와이드웹인데 기본적인 이용방법을 익히고 난 후에 누구나 공통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에 있는 컴퓨터도 주소를 알아야 접속할 수 있고, 루브르 박물관의 컴퓨터도 주소를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는 이런 주소가 수백만개 이상 존재한다. 문제는 바로 이 주소를 우리도 모두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어떤 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한 다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관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고 싶다면 주소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디렉토리 서비스 혹은 Subject Guide라고 불리는 웹사이트들이다. 전화로 생각하면 전화번호부나 114와 유사한 개념이며 자신이 필요로하는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웹사이트 주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서 가장 대표적인 디렉토리서비스이자 가장 유명한 컴퓨터인 야후!(Yahoo!)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야후!는 스탠포드 대학원에 다니던 제리 양과 데이빗 필로가 창업한 벤처기업이자 인터넷을 통해 사업에 성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yahoo.com/>이다. 우리가 최소한 114라는 전화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야후!의 주소만 기억하고 있으면 전세계의 유명 웹사이트들 주소는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즉 야후!의 주소는 반드시 외워야 한다.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http://www.yahoo.com/>에 접속해야 한다. 이곳에 접속해 보면 화면 상단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조그만 창이 하나 있고 화면 아래에는 Art, Business, Entertainment 등 14개의 주제어가 나열되어 있다.

이 곳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먼저 자신이 찾는 내용이 야후!가 제시하는 14개의 주제어 중 어떤 단어와 가장 가까운가를 판단한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그 단어를 클릭해주면 해당 단어와 관련된 조금 더 구체화된 주제어들이 다시 나열된다. 이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이 찾는 내용과 가장 근접한 단어를 클릭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5-6번만 단어들을 선택해주면 관련된 사이트의 주소 목록을 만나게 되고 이 목록에서 사이트의 제목을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극장에 개봉된 Mulan이라는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야후!의 첫 화면의 14개 대주제 중에서는 Entertainment가 가장 유사한 단어이다. 그 다음 화면에서는 Movies and Film을 선택하고 그 다음 화면에서는 Titles가 가장 가까운 단어로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Animation을 클릭하면 Mulan이라는 제목을 볼 수 있으며 여기를 클릭하면 Mulan에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들의 주소를 모두 알게 되는 것이다.

야후!를 이용하는 두번째 방법은 단어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자신이 찾는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야후!에 입력하면 그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웹사이트들을 골라서 보여주는 것이다. 단어 입력은 야후!의 초기화면에 있는 단어 입력창을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위의 예제를 두번째 방법으로 찾는다면 야후!에 접속한 후 단어 입력창을 마우스로 한 번 클릭한 후 Mulan이라고 키보드를 이용하여 타이핑 해준다. 그리고 나서 Enter를 눌러주면 다음 화면에서 Mula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웹사이트의 목록을 볼 수 있

고, 이곳에서도 웹사이트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이처럼 야후!를 이용하면 어떠한 주제이건 관련된 웹사이트들의 목록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본 원칙으로 Know How보다 Know Where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때 그때 자신이 필요한 정보가 인터넷 어느곳에 있는지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야후!를 이용하면 Know Where에 대한 기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된다.

야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는데 있다. 또한 야후!는 이 서비스의 성공으로 보다 많은 네티즌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즉, 특정 국가 혹은 도시의 정보만을 골라내서 지역별 소규모 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야후!의 자회사가 설립되었고 야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글로된 국내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는 야후! 코리아(<http://www.yahoo.co.kr/>)이 서비스 되고 있다. 한글로 된 정보를 이용할 때는 야후! 코리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넷에는 야후! 외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네티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유명한 곳들로는 심마니(<http://simmany.chollian.net/>), Naver(<http://www.naver.com/>), 알타비스타(<http://altavista.digital.com/>)와 한글 알타비스타(<http://www.altavista.co.kr/>) 등이 있다.